

누가복음 23-24
Tape #C2541
By Chuck Smith

And the whole multitude of them arose, and they led him unto Pilate. And they began to accuse him, saying, We found this fellow perverting the nation and forbidding to give tribute to Caesar, and saying that he himself is Christ [or the Messiah,] a king (23:1-2)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23:1-2).

Now notice, their accusation against Him was blasphemy, "You're saying You're the Son of God." When they brought Him to Pilate to accuse Him before Pilate, they didn't make that charge at all before Pilate. Why? Because they knew that Pilate would throw it out. You say, "It's just your own problem if your own religious superstitions don't come to the Roman court with that." So when they came to the Roman court, they came with a whole different set of charges. The charges before the Roman court was that of perverting the nation, seditious. "He is a man who said you shouldn't pay taxes to Caesar." That's not true. He said, "Give to Caesar that which is Caesar's." And then they also accused Him of declaring Himself to be the King.

그들이 그를 반대하여 고소하는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것 이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하노라.” 그들이 그를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려고 데려왔을때 그들이 빌라도 앞에서는 그것으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그러한 경우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겠죠. “종교적인 미신은 너희 자신들의 문제니 그런걸 가지고 로마법정에 오지말라.” 그래서 그들이 로마법정에 올때 전혀 다른 죄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마법정 앞에서의 죄목은 나라를 뒤엎으려는 선동의 죄입니다. “그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치 말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가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했다는고 고소했습니다.

And Pilate asked him, saying,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And he answered and said, [You said it] Thou sayest it (23:3).

Equivalent today of saying, "Hey, you said it!"

And then said Pilate to the chief priests and to the people, I find no fault in this Man. And they were the more fierce, saying, He stirs up the people, teaching throughout all of Judea, beginning from Galilee to this place (23:4-5).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말했어) (23:3).

그것은 오늘날의 “네가 말했어” 라는 말에 상당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23:4-5).

Now Galilee was the place where all the rebellions against Rome started. So by placing Him in Galilee, they were seeking to place Him at the heart of rebellion against Rome. "This man is stirring up people everywhere, up there in Galilee." And it was one of those buzzwords by which they intended to get Pilate excited.

But when Pilate heard Galilee, he asked whether the man was a Galilean. And as soon as he knew that [he was a Galilean,] he belonged to Herod's jurisdiction, he sent him to Herod, who himself was also was at Jerusalem at this time (23:6-7).

갈릴리는 로마를 반대하는 모든 반역행위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함으로 그를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의 중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취급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선동하고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빌라도를 흥분시키기 위한 상투어 중의 하나였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23:6-7).

This is Herod Antipas.

And when Herod saw Jesus, he was exceeding glad: for he was desiring to see him for a long time, because he had heard so many things about him; and he had hoped that he might see some kind of a miracle done by him. Then when he questioned him in many words; but Jesus answered him nothing (23:8-9).

이 사람은 헤롯 안티푸스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23:8-9).

This is the Herod, of course, who had beheaded the cousin of Jesus, John the Baptist. And Jesus had nothing to say to him at all.

And so then Herod with his men of war set him at nought, and mocked him, and arrayed him in a gorgeous robe, and sent him again to Pilate. And the same day Pilate and Herod were made friends together: because there had been enmity between them for quite some time. And Pilate, when he had called together the chief priests and the rulers of the people, he said unto them, You've brought this man unto me, as one that is perverting the people: and, behold, I have examined him before you, and I find no fault in this man touching those things whereof you accuse him: no, nor did Herod: for I sent you to him; and lo, nothing worthy of death has been done by him. I therefore am going to chastise him, and release him (for of necessity it was a custom that he would release unto them one prisoner at the feast). And they cried out all at once, saying, Away with this man, and release unto us Barabbas: (who for a certain sedition made in the city, and for murder, was cast into prison.) (23:11-19)

물론, 이 사람은 예수의 사촌인 침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푸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전혀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명절에는 그들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러라 (23:11-19).

Now Barabbas was guilty of these very charges which they were making against Jesus. False charges against Jesus; they were true against Barabbas.

Pilate, therefore, willing to release Jesus, spake again to them. But they cried, saying, Crucify him, crucify him. And he said unto them the third time, Why, what evil has he done? I have found no cause of death in him: I therefore will chastise him, and let him go. And they were instant with loud voices, requiring that he might be crucified (23:20-23):

And the tragic scripture...

and the voices of them and of the chief priests prevailed (23:23).

바라바는 그들이 예수에게 뒤집이 씌우려는 바로 그러한 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대한 거짓 죄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는 바라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23:20-23)

슬픈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23:23)

How sad when the voices of the mob prevail.

And Pilate gave sentence that it should be as they required. And he released unto them him that for sedition and murder was cast into prison, whom they had desired; but he delivered Jesus to their will. And as they led him away, they laid hold upon one Simon, a Cyrenian, coming out of the country, and on him they laid the cross, that he might bear it after Jesus (23:24-26).

폭도들의 소리가 이기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23:24-26).

Now the procession, typical Roman procession, was, they had four Roman soldiers; two going slightly ahead and two slightly behind, and the prisoner in the middle. And then, one soldier would lead the procession. And the soldier leading the procession had a sign with the accusation against the person to be crucified. In this case, the sign said, "The King of the Jews." And when they came to the place of crucifixion, this sign was then nailed to the top of the cross so that the people would all know the reason why this man was being put to death by the Roman government. As they would go through the streets of the city, they would usually take the longest route. And, of course, there was always a lot of noise and a lot of clamor, and this was intended to draw the people out to see what was happening. And they would see this man walking in the midst of the Roman soldiers, pulling his cross along, and they knew that he was going to be crucified and the accusation against him was in front. And it was like terror in the hearts of the people against trying to rebel against Rome.

전형적인 로마의 행렬은 네 명의 로마 병사가 조금 앞에 두 사람과 조금 뒤에 두사람이 따르며 죄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때 한 병사는 행렬을 인도합니다. 행렬을 인도하는 병사는 십자가에 못박힐 죄수가 고발 당한죄를 쓴 패말을 가지고 갑니다. 이 경우에는 패말에 “유대인의 왕” 이라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형을 받을곳에 왔을때 이 패말을 이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의해 처형을 당하는 이유를 만인이 알도록 십자가 꼭대기에 못으로 박아 놓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지나갈때 가장 먼 길을 선택합니다. 물론 매우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거기에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이 보도록 그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것입니다. 무리들이 로마 병사들 중간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끌면서 걸어가는것을 볼수 있으며 그들은 그가 패말에 쓰여있는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받게 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 위한것입니다.

Jesus, weakened by the chastening, was probably physically unable to bear the cross any further. And so they compelled this man Simon, who was a Cyrenian, to bear the cross. What the Roman soldier did was just take his sword and lay it flat on your shoulder, and he could order you to carry his bags for a mile. And that was Roman authority; you couldn't say no. You couldn't say,

"Well, I'm busy. I have to get this quart of milk home to my wife. She's baking cookies and expecting me to come home with milk." You couldn't do that. He laid that sword flat on your shoulder and if he'd tell you to do something, no arguments. You had to do it. And so they laid the sword flat on Simon's shoulder and said, "Carry this man's cross," and Simon began to carry the cross.

매를 많이 맞아 약해진 예수는 아마도 신체적으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수 없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인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로마 병사가 한것은 그의 검을 뽑아 당신의 어깨에 올려 놓으면 그의 짐을 일 마일 운반하도록 명령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인의 권세이며 그것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나는 바빠요. 이 우유를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갖다 주어야 합니다. 지금 쿡기를 굽고있는데 내가 우유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만일 그 병사가 그의 검을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무얼 하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수 없습니다. 그냥 해야합니다. 그가 시몬의 어깨에 그의 검을 올려 놓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고 했으며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Now, according to Josephus, the Roman government, the Jews would not allow a census to be taken since the time of David, when the judgment of God came against Israel because David numbered the people. And so, the Roman government wanted to know approximately how many people there were. And so they counted the number of sheep that were killed for the Passover at the time of Christ. And according to Josephus, there were 26,572 sheep killed for this one Passover. And there was, according to the law, a minimum of ten people to eat the one lamb. You had to have at least ten people. So the number of people at that particular Passover was over 2,700,000. Of course, it was the longing desire of every Jew to go to Jerusalem for the Passover some time in his life. If you lived within fifteen miles of Jerusalem, an adult male, you were required to be there.

요세푸스에 의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다윗의 시대 이후로는 로마정부가 인구조사 하는것을 유대인들이 허락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는 그곳의 인구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월절 양을 몇 마리나 죽이는지 그 수를 헤아렸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유월절에는 26,572 마리를 죽였다. 율법에 의하면 최소한도 10명이 양 한마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양 한마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10 사람 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한 특별한 유월절에 모인 사람의 수는 2,700,000 명 이상 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의 생애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는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만일 예루살렘에서 15 마일 거리 안에 살면 모든 어른 남자들은 그곳에 가야합니다.

Further away it was always your dream. And so, when they would partake of the Passover, they would say, "This year here; next year Jerusalem." Even to the present day, it's a traditional part of the Passover feast. "This year here; next year Jerusalem." Simon had, no doubt, come from Tripoli, for that is a Cyrenian who was from Tripoli, for this Passover. It could be that he was very upset when that Roman sword was laid on his shoulder and he was compelled to bear the cross. We do not know, but we are told that this Simon was the father of Rufus and Alexander. The fact that his sons are named, I believe it's in Mark's gospel, it means that his sons were well known by the Christians. So there is a very good likelihood that this Simon, as a result of his encounter with Jesus and bearing the cross of Jesus, was converted. And his sons became well known in the early church, Rufus and Alexandria. As Paul is writing to the church in Rome, he said, "And greet Rufus, who is as my brother, and his beloved mother, who is as my own mother." It could be the very Rufus, the son of Simon who was compelled to bear the cross of Jesus.

멀리 떨어져 사는 삶들에겐 그것이 항상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에 참석할때 말하기를 “금년엔 여기서,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까지도 “금년엔 여기서, 내년엔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는것이 유월절의 전통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시몬은 트리폴리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월절을 위하여 트리폴리에서 온 구레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의 검이 그의 어깨에 놓였고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당했을때 그는 대단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듣기엔 그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아들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그가 개종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초대교회에 루포와 알렉산더로 잘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때 그는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강요를 당했던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And there followed him a great company of people, and of women, which also were bewailing and lamenting him. And Jesus turning unto them said, Daughters of Jerusalem, don't weep for me, but weep for yourselves, and for your children. For, behold, the days are coming, in the which they will say, Blessed are the barren (23:27-29),

To be barren was a curse. They'd always say, "Cursed are the barren." If a woman could not bear a child, that was cause for divorce, legal cause for divorce, an acceptable cause for divorce. If you could not bear a son for your husband, that was an acceptable cause for divorce in those days. And they would say, "Oh, she's cursed; she can't bear children." But Jesus said, "The day is going to come when they're going to say, 'Blessed are the barren.'"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23:27-29).

아이를 낳지 못하는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것은 저주로다” 라고 합니다. 만일 여인이 애기를 가지지못하면 법적으로 받아 드려지는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만일 남편을 위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도 그 당시엔 이혼의 사유로 받아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오, 그 여인은 저주 받았어. 아이를 낳지 못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and the womb which has never born, or the breasts which have never nursed. Then shall they begin to say to the mountains, Fall on us; and the hills, Cover us. For if they do these things in a green tree (23:29-31),

That is, while I am here, the light of the world...

what are they going to do in the dry? (23:31)

These days did come. In less than forty years, the Roman troops came and ravaged the land of Palestine. And the vast majority of the Jews were killed. In the final assault upon Jerusalem, according to the account of Josephus, over a million Jews were killed. And 96,000 were carried captive back to Rome to be slaves for life.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23:29-31),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23:31)

이러한 날이 왔습니다. 40년 이내에 로마군이 들어와 팔레스타인을 약탈했습니다. 유대인의 대 다수가 학살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공격해 왔을 때, 요세푸스에 의하면, 백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6,000 명은 로마에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가 되었습니다.

There were also two other, malefactors, who were led with him to be put to death. And they were come to the place, which is called Calvary,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the malefactors, one on the right hand, and the other on the left. Then said Jesus,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And they parted his raiment, and cast lots (23:32-34).

This statement of Jesus,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according to Luke's gospel here, was made as they were preparing them for the cross. That is, they would lay the cross down on the ground, which was in a shape sort of a "T." And they would stretch out the prisoner's hands on the crossbars and they would drive these spikes through his hands.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뉘 제비 뽑을새 (23:32-34).

예수의 이 성명,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십자가를 준비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들이 십자가를 땅에 내려 놓았고 그것은 “T”자의 모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수의 팔을 펴서 양손을 뚫고 들어 가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Last year when I was in Jerusalem, I was visiting in a house of a Theo Sidonboom, who had excavated under his house and had come back to the Roman period. And had found there this large spike, which looks like a railroad spike. And he said to me, "These are the spikes that it is believed the Romans used in crucifixion." I said, "Theo, I've got to have one of the spikes. I don't care what it costs; I want one." I hope that he has one for me when I go back. I'm going to call and see. He said he thought he could get me one. I want to show you what the Roman spikes look like that they have uncovered there in Jerusalem. But they would drive these spikes through the hands on the crossbars. And in the case of Jesus, they drove the spikes also through his feet, as they

nailed Him to the cross. And then they would implant the cross in the ground. Now, while they were nailing Him,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작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데오 시돈뵘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는 자기집 밑을 발굴해서 로마시대의 지층까지 들어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큰 못을 발견했는데 철도에 박는 못과 같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못들은 로마시대 십자가 처형에 사용되었던 것들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데오, 내가 하나 가져야겠는데, 값이 얼마든지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그가 내것으로 하나 보관했기 바랍니다. 내가 전화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나한테 하나 줄수있을거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로마시대의 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못을 십자가의 평행목에 손을 박는데 사용했습니다. 예수의 경우에는 그들이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발을 뚫고 지나 가도록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세워 땅에 심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못을 박을 때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Here we find that Jesus, having been brought to the place physically, where He could no longer go around touching the blind eyes, touching the deaf ears, because His hands are now held fast to that cross. Though He cannot minister in an active way, walking around their villages any more, still there's one avenue of ministry left. And He exercises it; the ministry of prayer. And He prays for them. And the prayer of Jesus was answered.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예수는 신체적으로 한곳에 끌려왔고 그가 더 이상 다니면서 장님을 만져주거나 귀머거리들을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그의 손이 이전 십자가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역을 활발하게는 할수 없고 각 동네마다 두루 다닐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가지 사역할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지금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역입니다. 그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On the day of Pentecost some fifty days later, when they were again gathered in Jerusalem for that celebration,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the early church and the people gathered to observe the phenomena that accompanie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Peter stood up and he said, "You men of Israel, harken unto me. For these men are not drunken as you suppose. It's only nine o'clock in the morning. But this is that which was spoken of by the prophet Joel, when he said, 'In the last days,' saith the Lord, 'I'm going to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and your sons and daughters are going to prophesy, and your young men are going to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And upon My servants and handmaidens will I pour out of My Spirit in that day,' saith the Lord. And there shall be blood and fire and vapor and smoke, and the moon shall be turned to blood and the sun into darkness before the great and notable day of the Lord come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d Peter said, "Jesus of Nazareth, a man who proved Himself to be of God among you by the marvelous works that He did, whom you, according to the predetermined accounts and foreknowledge of God, with your wicked hands have crucified and slain.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hat He could be held by death. For David, by the Holy Spirit, said, 'Thou will not leave my soul in hell, neither will You allow the Holy One to see corruption.'" And Peter said, "This was fulfilled, for His soul was not left in hell. Neither did the Holy One see corruption, but the same Jesus hath God raised from the dead, Who ascended on high and is now given this which you see...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Acts 2:14-33).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어 준비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옵았음이라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14-33).

And they were convicted in their hearts. And they said unto them, "Men and brethren, what shall we do since we'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And Peter said, "I realize that in ignorance you did it. But repent and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Acts 2:37-3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영광의 주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무지하므로 그렇게 하였으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행 2:37-38).

Now, "Father, forgive them. They know not what they do." Peter said, "You did it in ignorance." And 2,000 souls were added to the church. The prayer of Jesus was answered. Those who had ignorantly put Him on the cross had found forgiveness and were now a part of the body of Christ.

And the people stood beholding. And the rulers also with them derided him, saying,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the Messiah, the chosen of God. And the soldiers also mocked him, coming to him, and offering him vinegar, and saying, If thou be the King of the Jews, save thyself. And a superscription also was written over him in letters of Greek, and Latin, and Hebrew,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23:35-38).

주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베드로는 “너희가 무지하므로 그렇게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 명의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예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무지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 된지 팔십 사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23:35-38).

Now this was the cry, the taunt, the jeer of the people: "Save Yourself!" You know where the inspiration for that cry came? From the pit of hell. For had

Jesus saved Himself, He would not be able to save you. That cry was coming from the pit of hell. It was a taunt, it was a jeer. The high priest said, "He saved others. Himself He cannot save. Let Him come down now if He is the Son of God. Let God save Him, if God will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because He said He's the Son of God." And this was the mockery, this was the cry. The soldiers, "Hey, if you'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man." The people, they picked up this chant, this cry, "Save Yourself!"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and we will believe Him," the priests said.

이것은 사람들의 외침과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네 자신을 구원하라!” 그 외침에 대한 영감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옥의 깊은 곳에서 온것입니다. 예수 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더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침은 지옥의 깊은곳에서 온것입니다. 그것은 조롱이었고 또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대 제사장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게 할찌어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찌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롱이었고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군병들도 “여봐,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하면서 희롱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말을 좃어듣고 “네 자신을 구원하라!” 고 외쳤습니다. 제사장들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고 말했습니다.

And one of the malefactors which were hanged railed on him, saying, If thou be the Christ, save thyself and us (23:39).

So, the same taunt that was coming from the crowd, this thief picked up. During the time of great psychic experiences, emotional experiences, emotions are close to the surface and there's this mob psychology and people begin to act like something other than people when they get into crowds many times. Even in football games. You know, people put on chicken suits and do all kinds of weird things. And everybody accepts it, everybody laughs. And you watch some of these people, you know, the weird get-ups and people do weird things in a crowd. There's sort of an anonymity in a crowd that people like. "Nobody knows me so I can act like a freak," and everybody laughs and has a good time. And there is that thing with the crowd of wisecracking. Have you ever been in a crowd when things were going on and people begin to make their smart remarks, and then it gets a little competition of who can make the smartest or cutest remark? And of course, you measure them on the laugh scale. You know, "You got an eight." "Well, you got a five." "Well, I got a ten." And these things to play on the emotions of the people, especially if it's a very shocking thing.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23:39).

무리들도 똑 같이 조롱했으며 이 도적에게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굉장한 심리적, 또 감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감정이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무리 속에 들어갈때 군중 심리에 의해 무리들과 같이 행동합니다. 풋볼 게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괴상한 옷을 입고 여러가지의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걸 받아 드립니다. 또 웃기도 합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군중가운데서 일어나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알려 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나는 장난꾸러기 같이 할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웃고 즐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농담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 본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그들의 재치있는 말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재치있는 발언을 하는가 경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나 우스우냐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8점 이요.” “당신은 5 점입니다.” “와, 나는 10점이네.” 이 모든것들을 사람들의 감정에 따라 하며 특히 그것이 아주 심각한 일일때 더욱 그러합니다.

I can imagine that to watch a man dying on a cross would be an extremely shocking thing to your psyche. I would think that that would be extremely difficult to just watch a man hanging there, watching him as he is fighting for breath, watching him as his body heaves, knowing the pain and just seeing him as he is gradually being worn down by the pain and the suffering and know that he is dying. That must be a tremendously shocking thing for the psyche. And so, I imagine that because you can't really think on that too long without really getting bugged by it, that there would be those that would make these off-handed remarks to divert the attention for awhile and to bring laughter, because just the shock of this thing settling in would be too hard to take.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는것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몹서리치는 것이라고 상상됩니다. 나무에 달려서 호흡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 또 거기서 그의 몸을 끌어 올리는 모습을 쳐다보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며, 그 고통을 알고 아픔과 고통으로 점점 기진하는 모습과 그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를 쳐다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것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몹서리쳐지는 일일것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래 생각하면 정말 미칠정도가 될것 같음을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의를 돌리도록 걸 맞은 농담을 해서 사람들을 웃깁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때문입니다.

And because it was the cry of the crowd and the common mockery and jeering against Christ, the thief, probably just to get a rise out of the crowd and maybe some sympathy towards himself by joining with them, reviled Jesus and

said, "Hey, why don't You save Yourself and us?" Ho-ho-ho! Funny! And there probably went the ripple of laughter through the crowd.

But the other thief turned to him, and he said, Don't you fear God, seeing that you're in the same condemnation? (23:40)

Hey, you're in the same boat, man, you're dying. Don't you fear God? It's the hour of death. Don't you realize that we're going to be facing the judgment of God soon? Don't you fear God?

그리고 그것은 군중들의 외침이었고 그리스도와 도적을 조롱하며 희롱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군중속에서 일어났고 자신들이 군중에 휩쓸려 예수를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여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호-호-호! 웃기네! 그 웃음이 아마 군중을 거쳐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23:40).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 하느냐? 죽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할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We indeed are here justly [justice is being served]; for we are receiving the due reward of our deeds: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amiss (23:41).

Pilate said, "I find no fault in Him." The thief testified, "He has done nothing amiss." Judas said,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And he said to Jesus,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23:42).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23:41).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적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것은 옳지 않은것이 없느니라.” 가롯 유다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23:42).

How did he know that Jesus was a King? Because above the cross there was written the word, "The King of the Jews." But this shows us that for

salvation, faith has to come from God. For somehow his faith transcended even that of the disciples. And somehow, by God, he knew that though this Man was dying, He was yet to come into His kingdom. He had a faith greater than the disciples, because at this point the disciples had been wiped out; they had forsaken Him and they had fled, they had given up hope. "We had trusted in Him for the salvation of Israel, but He now is crucified. It's all over." But somehow, God planted faith in the heart of this man. For by grace are you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예수가 왕인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머리위에 있는 죄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터 오는것임을 보여 줍니다. 어떻게해서든지 그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을 능가했습니다. 어떻게해서인지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의 왕국을 세우기위해 다시 오실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도 사라졌 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모든것이 끝났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것이 아니라.

It is a gift of God an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God planted faith, saving faith in the heart of this man. And he somehow realized that even though he was dying, there was a message, just a short message,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And he believed it. It had to be the faith of God planted in his heart. And so he said, "Lord,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would You remember me?" Not, "Would You honor me?" Not, "Would You exalt me?" Just, "Remember me, Lord." The disciples were the ones that were saying, "Lord, when You come into the kingdom, exalt me. Let me sit at Your right hand, let me sit at Your left hand, let me be prime minister. Let me have Hawaii!" This man was just saying, "Lord, would You just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Oh, what a simple prayer! But it brought him salvation. Oh, how close each of us are to salvation! It's just a simple prayer;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Lord, remember me." We read, "Wherefore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all who come unto God by Him." Where Jesus said, "And whosoever cometh un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Even a dying thief in his last hour who says, "Lord, remember me," can find salvation." And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23:43).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죽어 가고 있었지만 여하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아주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존중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나를 높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여, 나를 기억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높여 주소서. 내가 당신의 오른 쪽이나 왼쪽에 앉게 하여주소서. 수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와이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사람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 얼마나 간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그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오, 우리가 구원에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 시간에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하며 죽어가는 도적 까지 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3:43).

This word *paradise* is a word that was used for the garden of the king, where he would invite his special guest to come and walk with him.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It was about the sixth hour (23:44),

That is noon. It's interesting that this all transpired before the miracles of the day. Before the earthquake, before the sun became dark, God had planted the faith in the heart of this thief to bring him salvation. "It was about the sixth hour,"

and there was darkness over all the earth until the ninth hour (23:44).

이 단어 “낙원” 은 왕의 정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이며 특별한 손님을 청하여 함께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때가 제 육시쯤 되어 (23:44),

그것은 정오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낮에 여러 이적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기 전이며, 태양도 어두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도적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때가 제 육시쯤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23:44).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And the sun was darkened, an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he midst (23:45).

"The sun was darkened," that is, nature refused to look at this horrible sight. Nature revolted against man.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the rocks were torn, nature revolting against man. Had God not restrained it, I'm sure that nature would have destroyed man at that point for his heinous crime.

오후 3 시입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23:44-45).

“해가 빛을 잃고” 는 자연도 이 끔찍한 장면을 보기를 거절하였다 는것 입니다. 자연도 인간에게 반항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흉악한 죄를 짓는 그 시점에서 틀림 없이 자연이 인간을 죽였을것입니다.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he midst." We are told in another gospel, "from the top to the bottom." Oh, how significant! The veil of the temple was the testimony of how unapproachable God was to man. No man dared to enter in beyond that veil, except the high priest, and that only one day in the year. And that only after many sacrifices and washings. And that only with great reverence and fear, having these bells tied on the bottom of his coat and a rope tied around his foot, so that those outside of the veil would listen for these bells to be tinkling inside. And if they would stop, then they would pull the guy out by his foot, knowing that he went into the presence of God with some blemish and God smote him dead. And so the rope, so they could pull him out and wouldn't even have to go in to get him. God was unapproachable by man. Man's sin had alienated from God. God's hand was not short, His ear was not heavy, but sins had separated people and the veil represented that separation of the unrighteous man from God. But at the death of Christ the way was made by

which man might come to God, and God ripped that veil from the top to the bottom, saying, "Come, come, it's open." The way is now made through Jesus Christ for you, for me, to be able to come directly to God.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또 다른 복음에서 “위로부터 아래 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해줍니다. 오, 의미가 깊습니다! 성전의 휘장은 인간으로서 접근할수 없는 하나님을 말해주는것입니다. 일년에 한번씩 대제사장의 아무도 감히 휘장을 지나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것도많은 희생을 드리고 썼은 후에 만 이루어 지는것입니다. 경외와 두려움으로 대제사장 겉옷밑에 많은 벨을 달고 밧줄로 그의 다리에 묶어 휘장 밖에서 벨의 땡그랑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것을 듣습니다. 만일 그 벨 소리가 멈추면 대 제사장을 노끈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때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때 흠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끈은 사람이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끌어낼수 있게 한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고 그의 귀도 어둡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 놓았습니다. 휘장은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갈라진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마련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갈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열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이젠 나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에게 나아갈수 있습니다.

And when Jesus had cried with a loud voice (23:46),

Luke doesn't tell us what He said, but the other gospels do. He cried, "It is finished!"

he then said,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and having said thus, he dismissed his spirit. Now when the centurion saw what was done, he glorified God, saying, Certainly this was a righteous man. And all of the people that came together to that sight, beholding the things which were done, smote their breasts, and they returned. And all of his acquaintances, and the women that followed him from Galilee, stood afar off, beholding these things. And,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Joseph, a counselor; and he was a good man, and a just: (And the same had not consented to the counsel and the deed of them;) he was of Arimathea, a city of the Jews: and who also himself was waiting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is man went unto Pilate, and he begged for the body of Jesus. And he took it down, and wrapped it in linen, and laid it in a sepulchre that was hewn in stone, wherein never before a man was laid. That day was the

preparation, and the sabbath was drawing on. And the women also, which came with him from Galilee, followed after him, beheld the sepulchre, and how his body was laid. And they returned, and prepared the spices and the ointments; and they rested the sabbath day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23:46-5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23:46),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다 이루웠다’고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 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23:46-56).

Chapter 24

Now upon the first day of the week, very early in the morning, they came to the sepulchre, bringing the spices which they had prepared, and certain others with them. And they found the stone rolled away from the sepulchre. And they entered in, and they found not the body of the Lord Jesus. And it came to pass, as they were very perplexed, behold, two men stood my them in shining garments: And as they were afraid, and

bowed down their faces to the earth, they said unto them, Why seek ye the living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is risen: remember how he spoke to you when he was still in Galilee, saying, The Son of Man must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sinful men, and be crucified, and the third day rise again. And then they remembered his words, And they returned from the sepulchre, and told all of these things unto the eleven, and to all the rest. Now it was Mary Magdalene, Joanna, Mary the mother of James, and the other women that were with them, which told these things to the apostles. And their words seemed to them as idle tales, and they believed not (24:1-11).

안식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24:1-11).

"Oh, hysterical women. Lord, deliver us!" And they just didn't believe.

Then rose Peter, and he ran to the sepulchre; and stooping down, he beheld the linen clothes laid by themselves, and he departed, wondering in himself what it all meant, [what's happened]. And, behold, two of them went that same day to a village called Emmaus, which was from Jerusalem about three score furlongs [or about eight miles]. And as they talked together of all of these things which had happened, it came to pass, that, while they were communing together and reasoning, Jesus himself drew near, and went with them. But their eyes were holden that they should not know him (24:12-16).

“오, 신경질을 부리는 여인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는 나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푸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십 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24:12-16).

So God sort of put blinders on them and they didn't recognize Him.

And he said unto them, What are you guys talking about as you're walking along here? How is it that you look so sad? And one of them, whose name was Cleopas, answered and said unto him, Are you a stranger in Jerusalem, you don't know the things which have come to pass in these days? And Jesus said unto them, What things? And they said unto him, Concerning Jesus of Nazareth, which was a prophet mighty in deed and word before God and all the people: and how the chief priests and our rulers delivered him to be condemned to death, and they've crucified him. And we trusted (24:17-21)

하나님이 그들의 눈이 가려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24:17-21).

It's past tense.

we had trusted that it had been he which should have redeemed Israel: and besides all this, this is the third day since these things were done (24:21).

"Hey, man, you must be a stranger; you don't know the things that have happened around here. There was this fellow, Jesus of Nazareth, a great guy! Mighty and power in God, and H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 brought us

hope. We hoped, we had trusted that He was going to be the One to bring deliverance. But they crucified Him, and this is the third day."

그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요 (24:21).

“여보시오, 당신은 외방인임이 틀림없소. 여기서 생긴일을 모르다니. 나사렛 예수라는 작자는 대단한 사람 이었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자로서 두루 다니며 선행을 행했고 소망을 주었소.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자로 바랐고 신뢰했었오.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를 못박았고 이 일이 된지가 사흘째라오.”

And there were certain women also of our company which made us astonished, they went early to the sepulchre; and when they did not find his body, they came, and said that they had a vision of angels, which said that he was alive. And certain of them which were with us went to the sepulchre, and found it was even as the women had said: but they did not see him. Then he said unto them, O fools, slow of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s have spoken (24:22–25):

What's He do? He takes them right back to the Word, right back to the prophecies.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4:22-25).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예언으로 돌아 가게 하였습니다.

Ought not Christ to have suffered these things, and to have entered into his glory? And beginning at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ounded unto them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24:26–27).

And I'll never forgive Cleopas for not writing them down. This is one of the messages of Jesus that I would give anything to have! How I would love to have heard Him start with Moses and go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bring out all of the scriptures that related to Him, three hundred prophecies that He

fulfilled by His birth, life, death, resurrection. Oh, what I wouldn't give to have this sermon recorded. Wouldn't it be great if they had cassettes or something and we could just listen to this message? Oh my!

클로에 파스가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는걸 나는 절대로 용서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값을 치뤄서라도 갖고 싶은 예수의 메시지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가 모세로 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에게 관련된 모든 말씀을 들쳐내어 그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삼백 여개의 예언들을 강해하는것을 듣고 싶습니다. 오, 내가 하는 이 설교를 녹음해 주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카셀 테이블이나 녹음할것이 있어 들어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게습니까? 오, 실망 스텝네요.

And they drew near to the village, where they were going: and Jesus acted like he would just keep going on further. But they constrained him, saying, Abide with us; for it is toward evening, and the day's almost over. And so he went in to stay with them. And it came to pass, as he sat at meat with them, he took bread, and he blessed it, and he broke it, and he gave it to them. And their eyes were opened, and they knew him; and he vanished out of their sight (24:28-31).

It's interesting to me that it was when He handed them the bread that they recognized. Is it possible that they then saw the nail prints? And their eyes were opened... "Wow!" And then He vanishes out of their sight, disappears.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 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24:28-31).*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그가 빵을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이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았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와-!" 하고 나니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으며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And they said one to another,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by the way, and while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24:32)

Have you ever had a burning heart as you read the Word of God? Has it ever just kindled a fire within your hear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look for

excitement in their religious experiences. They look for emotional highs. They look to discover some kind of a miracle or phenomena that they can get all excited about; an angel appeared, or some other type of phenomena. These men said, "Did not our hearts burn when He talked to us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I think that it is a sign of spiritual health and maturity when a person begins to get that burning heart as he searches the scriptures, as the Holy Spirit begins to open the scriptures to him. I tell you, I get so excited just reading the Word of God. I get so excited, there are times when I just really can hardly contain myself; as God's Spirit begins to open up the scriptures to me just as I'm reading. The Spirit of God just begins to open them up, and I just get so excited. I can't describe to you just how exciting it is to be taught of the Spirit, the truth of God's Word, and suddenly just have the understanding given to you and the scriptures opened up to you. That's healthy. There are some people that get excited when people speak in tongues or when people utter prophecies. I get excited over the Word of God. Some people get excited with visions or dreams. I get excited over the Word of God.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24:32).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때 마음이 뜨거워 본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불이 붙어 본적이 있습니까? 종교 경험에서 감격을 찾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고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흥분하고 어떤 종류의 기적이거나 어떤 현상을 발견하거나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상고하며 성령이 깨달음을 주실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해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때 몹시 감격해 집니다.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을때 성령께서 열어 주시기 시작할때 너무 감격해서 혼자 간직할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나는 감격해 집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깨달음을 주시며 성경을 열어주시는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때 대단히 감격해 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해 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을 꾸어서 감격해 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게 됩니다.

So they rose up in the same hour, and returned to Jerusalem (24:33),

I'll bet they got back to Jerusalem a lot of faster than they got to Emmaus.

and they found the eleven gathered together, and those that were with them, and they said to them, [Hey,] the Lord is risen indeed, he appeared to Simon (24:33-34).

곧 그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24:33),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갈땐 엠마오에 왔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갔을것 입니다.

열 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24:33-34).

Telling these two fellows that came in, "The Lord is risen! He appeared to Simon!" And they said, "Hey, we had an experience."

And they told what things were done as they were on the path, and how he was known to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And as they were talking about this, Jesus himself stood in the midst, and he said unto them, Shalom (24:35-36).

Typical Hebrew greeting.

But they were terrified and frightened, and they thought that they were seeing a ghost. And he said unto them, Why are you troubled? why do these questions arise [in your minds and] in your hearts? Behold my hands, my feet, it is me: handle me, and see; for a spirit does no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me have (24:37-39).

들어온 두 사람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 나시고 그가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도 “우리도 경험했다” 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니 (24:35-36).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24:37-39)

Now there are some people that find difficulty here because Jesus is saying, "Handle Me. See if it isn't Me." When earlier in the day He said to Mary, "Touch Me not. I'm not yet ascended to my Father." The words of Jesus to Mary, "Touch Me not," the words "touch Me not" are a poor translation of the Greek. In the Greek, it reads, "Don't cling to Me." Mary was, no doubt, touching Him already. She, no doubt, had a death grip on Him. "You got away from me once, You'll never get away from me again! All right, I'm not going to let You go." And He said, "Don't cling to Me, Mary. Go and tell My disciples that I'm risen." So it wasn't, "Don't touch Me," some mystic thing, but it's just, "Don't cling to Me, Mary. Go tell the disciples I am risen." Here He's saying, "Look, handle Me. See if it isn't Me. Ghosts don't have flesh and bones as you see Me have."

예수께서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나 인지 보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에 어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찌기 주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오라가지 못하였노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의 말씀, “나를 만지지 말라” 고 하신것은 헬라어의 빈약 한 해석입니다. 헬라어로는 “나에게 매달리지 말아라” 로 읽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마리아는 벌써 주님을 손으로 붙들뿐만 아니라 꼭 붙들고 늘어집니다. “한번은 떠나 가셨지만 이제 다시 떠나 가실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젠 다시 놓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리아야, 나를 붙들고 늘어지지 말아라.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가 아니고, 신비스러운 어떤것도 아니며, 그것은 오로지 “마리아야, 나를 붙들고 매달리지 말고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만져보라. 정말 나인지 아닌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And when he had thus spoken,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feet. And while they yet believed not for joy (24:40-41),

Now it was just too much. "We can't believe it; it's just too much."

and they were wondering, he said unto them, Do you have any meat? And they gave him a piece of broiled fish, and some honeycomb. And he ate it before them. And he said unto them, These are the words which I spake unto you, while I was yet with you, that all of the things must be fulfilled, which were written in the law of Moses, in the prophets, and in the psalms (24:41-44),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므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24:40-41),

그것은 너무합니다. “그건 너무 심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24:41-44),

The Psalms are filled with prophecies concerning Jesus Christ. There are entire Psalms that are known as Messianic Psalms; Psalms 22, graphic description of the crucifixion. Psalm 110, the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Psalm 118...and just over and over, many Psalms. And so He said, "Didn't I tell you that these scriptures must be fulfilled, Moses and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n opened he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s (24:45).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꼭 차있습니다. 어떤것은 시편 22장 같이 한장 전체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졌고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에 관한 그림 같은 묘사가 있습니다. 시편 110 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의 묘사이며, 시편 118편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시편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24:45).

And that's a glorious gift, when God opens your understanding that you might understand. And that happens when you're born again. If you try and read the scriptures without being born again, they're a mystery to you. "For the natural man does not understand the things of the Spirit, neither can he know them,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But he which is spiritual understands, though he is not understood by any" (I Corinthians 2:14-15).

And he said unto them, Thus it is written, and thus it behooved the Messiah to suffer, and to rise from the dead the third day: and that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should be preached in his name among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And you are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24:46-48).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해하도록 해주실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그것은 중생할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중생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려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신비로울 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 2:14-15).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4:46-48).

So, here He is commissioning them, that they should go out and preach the repentance and the remission of sins to all nations. "And behold, I sent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This is the promise, no doubt, made to Joel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prophecy of Joel when God said, "And in the last days, saith the Lord, when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flesh."

I send the promise of my Father upon you: but tarry ye in the city of Jerusalem, until you be endued with this power from on high (24:49).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But they were to wait in Jerusalem until the promise was fulfilled.

여기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은 가서 죄의 회개와 사함을 만민에게 전파 할 사명을 주십니다.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에 요엘에게 하신 예언의 약속이며 “주의 말씀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불찌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24:49).

이것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Now this translation, "Tarry ye in Jerusalem," was picked up by the Pentecostal churches and they had traditional tarrying meetings where people gathered to tarry to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at's unscriptural. Jesus said, "Tarry in the city of Jerusalem." So to tarry in Santa Ana would not be scriptural.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는 이 번역은 오순절 교회들이 그것을 선택하여 사람들이 모여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까지 머물러있는 전통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타아나에 유하는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Jesus was not prescribing the method by which the Holy Spirit should be poured out upon all believers during church history. There was to be that initial day in which the Spirit of God would be poured out upon the church as an abiding gift. They were to wait for that day, they were to wait in Jerusalem for that day. Once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and the Holy Spirit was poured out as an abiding gift upon the church, it was never necessary for them to tarry again to receive the Holy Spirit. All that was necessary was for them to by faith receive the gift of God. You don't have to tarry to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t's God's gift. You receive it by just faith. "This gift is unto you and your children and to those that are far off, even as many as the Lord our God shall call."

예수께서는 교회 역사상 성령을 모든 신자에게 부어주는 방법을 처방하지 않았습디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은사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첫 날이 있게 되어 있었습디다. 그들은 그 날을 기다려야 했으며, 그날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디다. 오순절이 완전히 가까워져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은사로 성령이 한번 부어졌을때 성령을 받기 위하여 다시 머물 필요가 없습디다. 그들에게 필요한것은 믿음 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것입디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디다.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디다. "이 선물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행 2:39)."

And so he led them out as far as Bethany, and he lifted up his hands, and he blessed them. And it came to pass, while he blessed them, he was parted from them, and carried up into heaven (24:50-51).

Now notice, He went as far as Bethany, lifted up His hands and blessed them. And as He was doing it, He was lifted up and went on into heaven. This was forty days after His crucifixion. He had been around among them for forty days. When you go to Jerusalem today on the Mount of Olives, I think there are three different sites where great churches have been built over the spot where Jesus ascended. The Russians have the Church of Ascension, the Lutherans have the Church of Ascension, and the Catholics have the Church of Ascension, all on the top of the Mount of Olives. And one of them, they'll even show you the footprints that He left in the rock when He ascended. It's interesting they're all on the top of the Mount of Olives, when the scripture said He went as far as Bethany. I'm glad there's no Church of the Ascension in Bethany. So you can just go to Bethany and think, "Somewhere in here Jesus ascended." But you don't have a spot. Nor do you have a lot of baubles and trinkets and souvenir

salesmen. Where He ascended is not so important as the fact that He did ascend there from Bethany.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24:50-51).

주목해서 보십시오.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40일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주께서는 40 일간 제자들의 주변에 계셨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면 예수가 승천하신 지점에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러한 곳이 세 군데나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승천한 교회 (The Church of Ascension) 를 지었고 루테란 교회도 승천한 교회 (the Church of Ascension) 을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도 역시 승천한 교회 (the Church of Ascension) 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그가 승천하신 바위에 발자국 까지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그들이 베다니 앞까지 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 전부 감람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 그리스도 승천의 교회가 없어서 기쁩니다. 그러니 베다니에 가서 “여기 어디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곳이 있다”고 생각 하십시오. 그러나 그 지점은 없습니다. 또한 많은 값싼 물건들이나 쓸데없는 물건들과 선물을 파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And they worshipped him, and returned to Jerusalem with great joy: and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 praising and blessing God. Amen (24:52-53).

They were continually in the temple...which means that when the Holy Spirit descended upon the church, they were probably in one of the rooms of the temple. Because it was ten days after this that the Holy Spirit did descend. And the fact that they were continuing daily in the temple praising and blessing God, means that this phenomena probably took place right there in the temple, in one of the rooms of the temple where they had gathered to worship and praise the Lord. We'll get to that when we get to Acts, the second chapter, but we won't get to that until we get to John, which we will start next week--the first two chapters of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4:52-53).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있었습니다...그것은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을때 그들은 아마 성전의 어떤 방에 머물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지 열흘후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한 사실은 그들이 성전에 있는 방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바로 그곳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이 끝난 다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Father, give us burning hearts by unfolding to us the truth of Your Word. And may we feel that excitement, that rush, that thrill of having Thy Spirit, Lord, just opening up the truths and giving us understanding and helping us to know You, Your love, Your way, Your will. Lord, as we go forth this week, guide us. May this be a week of spiritual growth. May this be a week of deepening relationship. May we draw closer to You, Lord. And may You work in our hearts and lives by Your Holy Spirit, as You would conform us into the image of Christ and make us true and faithful witnesses of our Lord. Bless us, strengthen us, help us, Father. In the name of Jesus, our Lord. Amen.

아버지, 당신의 말씀의 진리를 열어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